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5년 12월 16일 · 제336호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컨테이너 중량검증 법제화 대응 생산성 저하방지 기술도입 필요
2. Panalpina, 화훼 수출입 전문 기업 Airflo 인수
3. 인도, 카마라자 항만 확장 계획 발표
4. 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, 니카라과 운하 평가 착수

| 물류시장동향 |

1. 아부다비 컨테이너 항만, 다음 단계 개발 계획 준비
2. 금년 1-11월 오데사 항만 물동량 전년대비 6% 증가

| 공지사항 |

1. 중소·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

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컨테이너 중량검증 법제화 대응해 생산성 저하방지 기술도입 필요

- 국제해사기구의 컨테이너 중량검증 규정이 2016년 7월 1일 발효예정이나 화주들의 대비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
 - Lloyd's Loading List는 해운 이-마켓플레이스(e-marketplace) 업체인 Intra에 의해 수행된 설문결과 단지 30%의 화주만이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Intra 회장인 Inna Kuznetsova씨는 설문결과 화주들은 컨테이너 중량검증 규정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화물운송 중단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, 해당 규정의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힘
- 컨테이너 중량검증에서는 컨테이너와 화물의 중량을 함께 측량하는 방식과, 화물과 컨테이너의 무게를 각각 측량하는 방식 등 두가지 방식이 있음
 - 첫 번째 방식은 화물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며 터미널 내 물류흐름도 비교적 단순화할 수 있으나 컨테이너 중량측정 스테이션 등 추가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부담이 있음
 - 두 번째 방식은 인프라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화주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중량검증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있음
- 주요 물류회사들은 컨테이너 총중량을 손쉽게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있음
 - 주요 화주들은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을 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음
 - 이러한 화주의 요구에 따라 Hapag-Lloyd, Kuehne & Nagel, Hamburg Sud를 포함한 대형 물류 회사들은 IMO 규정에 부합하는 전자총중량검증(e-Verified Gross Mass, eVGM)계획에 착수하였음
 - eVGM계획은 총중량검증(VGM) 및 결과의 전자문서화를 위한 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표준에 대한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음
 - Kuehne & Nagel의 해상운송 국제 담당자인 Otto Schacht씨는 국제 VGM 소통표준 및 실질적인 행동지침이 빨리 마련되지 못하면 내년 6~7월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힘
- 해외 일부 터미널에서는 컨테이너 처리 및 하역과정에서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
 - 컨테이너 총중량을 측정하는 효율적인 대안은 터미널 내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동안 하역장 비나 취급장비에서 총중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나,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의 이동 중 정확한 무게 측정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, 측정 결과의 전달 및 신뢰성 확인도 문제가 됨



- 그러나 영국 Felixstowe 터미널은 상기 문제점을 극복한 기술을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시험운영 중임
- 해당 기술은 중량 모니터링 기술과 무선데이터로깅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컨테이너 하역장비 및 취급장비에 2시간 내에 부착이 가능함
- 컨테이너가 터미널 내에서 일상적으로 처리되는 동안 로드셀에 의해 측정된 중량정보가 무선으로 노트북, 스마트폰 등에 전송됨은 물론, 바로 터미널운영시스템(Terminal Operating System)에 직접 전달됨
- 따라서 별도의 전용 계근대 등의 설치가 필요 없으며, 터미널 내 물류흐름을 단순화 시켜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동시에 컨테이너의 과적을 사전 적발하여 항만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
- 국내에서도 법·제도적인 준비와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컨테이너 중량측정 기술을 도입하여 항만하역 생산성 저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, 2015.12.7. 2015.11.23.

전형모 전문연구원
051-797-4683, hmjeon@kmi.re.kr



Panalpina, 화훼 수출입 전문 기업 Airflo 인수

- Panalpina는 케냐지역 사업 확장을 위해 지난 11월 네덜란드 Dutch Flower Group(DFG)의 계열사인 Airflo 케냐(Kenya)를 인수했음
 - Airflo는 케냐 두 번째 규모의 항공운송업체로 네덜란드와 영국의 화훼류 및 신선채소류 수출입에 특화된 기업으로 케냐 나이로비(Nairobi)와 네덜란드 알스메르(Aalsmeer) 지역에 총 167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음
- Airflo 케냐를 통해 연간 4만 톤 가량의 화훼류가 케냐에서 네덜란드로 수출되고 있으며, 특히 장미류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
- Panalpina의 Peter Ulber 대표는 “케냐는 글로벌 화훼 시장의 키 플레이어(Key player)로 Airflo 케냐의 인수를 통해 Panalpina의 아프리카 내 입지가 보다 확대될 것”이라고 언급함
- 또한 DFG의 Marco van Zijverden 대표는 “DFG의 핵심역량은 화훼류를 신선하게 보관·처리하는 능력이며, Panalpina와 같은 강력한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공동 업무를 통해 Panalpina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접목시켜 DFG의 글로벌 공급체인 역량 강화가 가능하게 될 것”이라고 덧붙임
- Airflo 케냐의 화훼류 운송은 나이로비 화훼물류센터에서 조모 케냐타(Jomo Kenyatta) 국제공항으로의 전 운송과정 품질관리를 비롯하여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서의 통관처리를 포함하고 있음
 - 화훼류의 통관 과정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며, 화훼류는 진공냉각기 등을 사용하여 4°C 가량의 온도 제어 상태에서 수송 및 보관되고 있음
- 금번 인수는 케냐와 네덜란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DFG와 Panalpina 측은 인수 관련 세부적인 재정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함

자료 : www.transportintelligence.com, 2015.11.11.

김은우 전문연구원
051-797-4772, hisgrace@kmi.re.kr



인도, 카마라자 항만 확장 계획 발표

- 인도 정부는 인도 동부의 카마라자(Kamarajar)항만의 처리 능력 확대를 위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
 - 카마라자 항만은 인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12개 항만 중 하나로 카마라자항만 주식회사(Kamarajar Port Ltd)가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
 - 2014년 기준 카마라자 항만은 처리능력의 75%에 해당하는 약 3,025만톤의 화물을 처리했으며, 선박에서의 선박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
- 카마라자 항만운영사의 MA Bhaskarachar 사장은 "향후 2년간 카마라자 항만의 처리 능력은 1억 톤 이상이 될 것"이라고 언급하며 "현재 카마라자 항만은 추가로 4,5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, 향후 2,9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2차 시설 확장 계획을 수립중"이라고 덧붙임
- 카마라자 항만의 주요 화물은 석탄으로 연간 총 처리 물동량의 80%가 발전소용 석탄임
 - 현재 연간 1,200만 톤을 처리 할 수 있는 두 개의 석탄부두가 건설되고 있으며, 이는 정부 소유의 발전소(TANGEDCO, Tamil Nadu Generation & Distribution Corporation Ltd.)에 의해 운영될 예정임
- 또한 카마라자 항만은 BMW, 포드, 현대, 닛산, Daimler, Ashok Leyland 등의 주요 자동차 생산 공장이 위치한 첸나이와 인접하고 있으며 도요타 수출입 역시 카마라자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인도 자동차 운송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음
 - 카마라자항만 주식회사는 인도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연간 30만대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부두의 개발을 계획 중에 있음
- 이 외에도 연간 5백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LNG 전용 터미널 개발, 연간 14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터미널 개발, 연간 2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터미널 개발을 계획 중에 있음

자료 : www.sea-web.com, 2015.12.10.

손보라 연구원
051-797-4781, bora62@kmi.re.kr



홍콩니카과운하개발, 니카과라 운하 평가 착수

- 홍콩니카과운하개발(HKND)¹⁾은 니카과라 운하의 해양 및 항만 평가를 수행할 컨설팅 기업으로 비엠티(BMT) 그룹을 선정함
 - 비엠티 그룹의 자회사인 비엠티 아시아태평양(Asia Pacific)과 비엠티 아르고스(Argoss)는 니카과라 운하의 잠재적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해 카리브해에 있는 항만과 니카과라 운하의 비즈니스 사례(Business Case) 조사 등을 착수한다고 밝힘
- 니카과라 운하에는 향후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여 한 개의 국제공항 및 두 개의 신규 항만이 건설될 예정됨
 - 향후 본 운하의 수용 가능한 선박은 2만 5천TEU급 컨테이너 선박을 포함하여 32만 중량톤(dwt)급의 슈퍼탱크(Super Tank) 및 40만 중량톤급의 벌크화물선(Bulk Carrier)등 임
 - 비엠티 그룹은 본 운하의 설계, 개발 및 운영 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힘
- 홍콩니카과라운하개발의 콕웨이 팡(Kwok Wai Pang) 전무이사는 비엠티 그룹이 향후 본 운하의 해양안전 및 교통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
 - 또한 그는 가까운 미래에 본 운하를 이용할 다양한 종류의 선박 및 이들 선박들의 다양한 이동 경로로 인해 본 운하가 교통과 연관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
- 비엠티 아시아태평양의 리처드 디 콜윌(Richard D Colwill) 상무이사는 자사가 실시하게 될 운하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문제점인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운하의 수용력(Capacity)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
 - 이에 더하여 그는 선박운항 시뮬레이터(Navigation Simulator)인 램브란트(Rambrandt)를 사용하여 향후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이 겪게 될 시나리오 및 문제점을 사전에 재현한다고 밝히고, 본 시나리오 재현을 통해 니카과라 운하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임

자료 : www.container-mag.com, 2015.12.11.

고재성 연구원
051-797-4776, jsko@kmi.re.kr

1) 홍콩니카과운하개발(HKND) : 니카과라 운하의 50년 운영권을 확보한 홍콩기반의 민간투자기업



물류시장동향

아부다비 컨테이너 항만, 다음 단계 개발 계획 준비

- 아부다비의 Khalifa port(칼리파 항만)는 다음 단계 확장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,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2년에 걸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예정임
 - Khalifa Port 컨테이너터미널은 Abu Dhabi Ports와 Mubadala and Mubadala Infrastructure Partners의 합작회사인 Abu Dhabi Terminals(ADT)가 운영하는 터미널로 지난 2012년 Zayed Port의 컨테이너 처리 기능을 옮겨왔음
- 이 항만의 연간 처리능력은 현재 190만 컨테이너 TEU이며, 추후 250만 TEU까지 증대될 예정임
 - 이 처리능력을 2030년까지 1,500만 TEU로 끌어올릴 계획임
- 2015년 10월까지 Khalifa Port 터미널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% 증가했음

자료 : <http://portfinanceinternational.com>, 2015.12.8.

신수용 전문연구원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금년 1-11월 오데사 항만 물동량 전년대비 6% 증가

- 2015년 1-11월의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만 물동량은 2,33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% 증가함
 - 오데사 무역항은 우크라이나 국영기업이 운영하며, 흑해·아조프해에 인접한 항만 중 가장 규모가 큼
 - 항만은 연간 1,400만 톤 이상의 석유제품 등과 같은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여객터미널에는 300m 크기의 선박이 접안 가능함
- 오데사항 환적화물 처리량은 작년부터 올 11월까지 첫 성장세를 기록함
 - 건화물, 액체화물, 특수화물별 처리화물을 살펴보면 건화물은 10.8% 증가한 반면 액체화물은 16.1% 감소함
 - 화물처리량 중 곡물은 775만 톤, 금속은 584만 톤으로 각각 32.5%, 42.5%의 급성장세를 보였음
 -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은 476만 톤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12.6% 감소함

자료 : www.gscintell.com, 2015.11.24.

황윤희 연구원
051-797-4786, hwangyh@kmi.re.kr



중소 ·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 · 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● 대상기업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· 중견기업
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 - ※ 중소 · 중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기업

● 대상사업

- 해외 물류시설(물류단지 · 센터 · 창고, 항만 · 복합물류 터미널 등)의 개발투자운영 사업
-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· 지사 · 사무소 설립 사업
- 상기 관련 M&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

● 지원내용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 · 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
- 현지 경제 · 무역 · 인프라 · 물동량 현황, 투자 관련 법 · 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,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
-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
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, 현지 공동조사(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)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
-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
 - ※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
-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



● 지원사업별 신청방법

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'(별첨 1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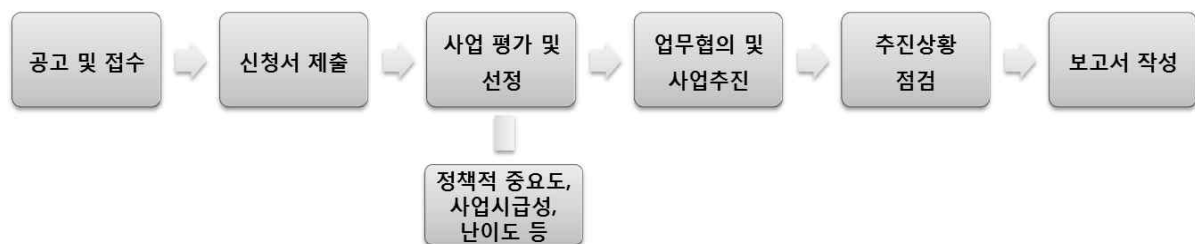
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'(별첨 2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 - ※ 담당자 : 김은우 전문연구원(hisgrace@kmi.re.kr), 손보라 연구원(bora62@kmi.re.kr)

● 신청서 평가 및 기타

- 선정기준 :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·시급성·난이도, 정책적 중요도,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·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·지원
- 선정결과 발표 : 신청서 접수 후 2~3주 이내 개별 통지
-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김은우 051-797-4772 / 손보라 051-797-4781)로 문의
 - ※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
● 사업 추진절차





별첨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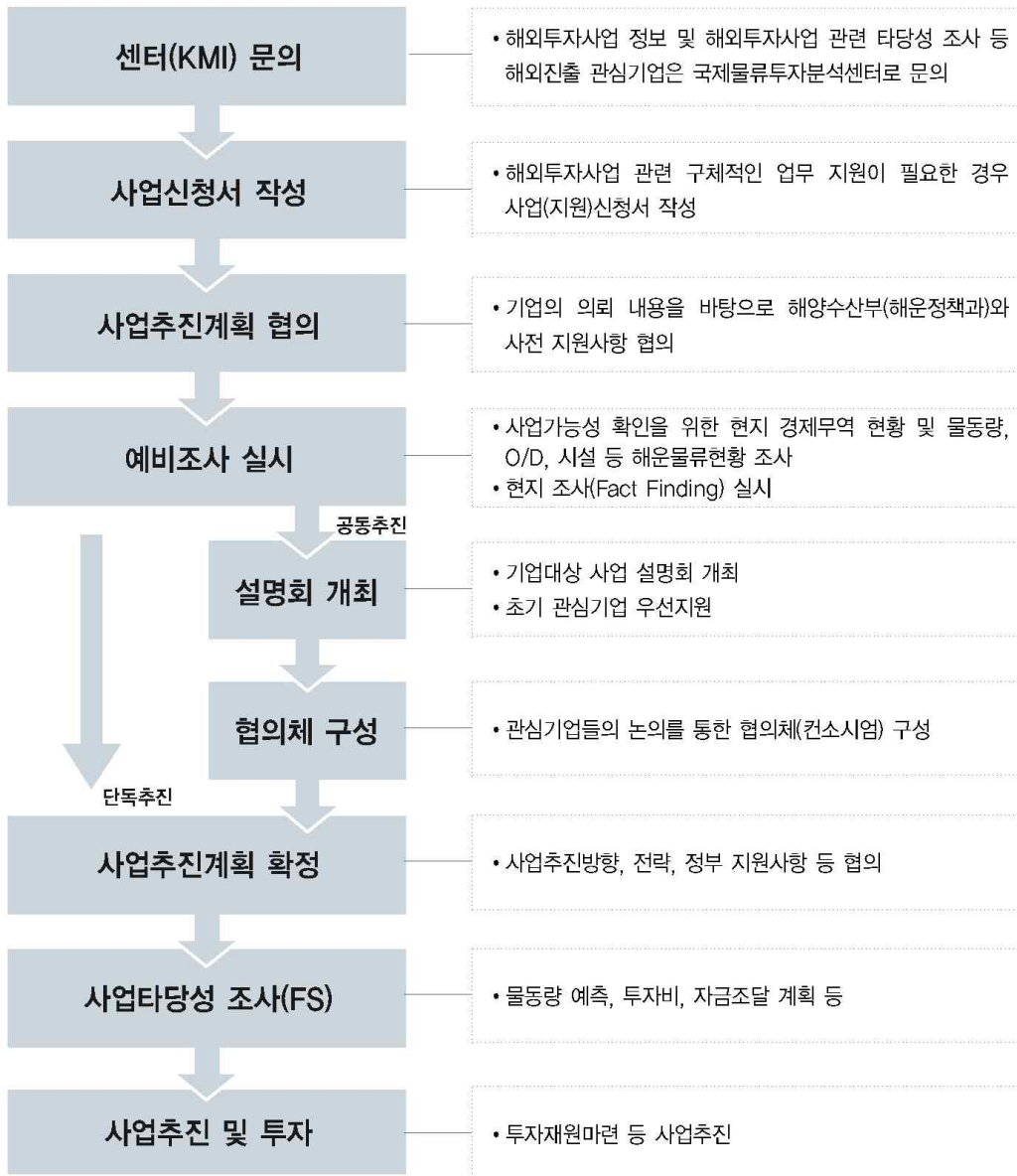
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

업체 개요	기업명		업 종	
	대표자		종업원수	
	소재지			
	자본금		매출액 (전년도)	
	사업자 등록번호		설립일자	
지원요청 내용	국가/지역			
	관련 사업			
	문의사항			
신청자	부서		Tel	
	직위		Fax	
	성명		E-mail	
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: 대 표 자 : (인)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				

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



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